

트럼프 최후통첩 시한 D-1...중동 긴장감 최고조

호르무즈 해협 안전 개방없으면 이란 발전소 초토화 지상군 원유 제재 완화...“출구 못찾는 오락가락 행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한이 22일(현지시간) 만 하루를 남기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후 8시께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상당 부분 통제하면서 전쟁에 활용하는 이란의 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 중 “가스 화력발전소와 기타 유형의 발전소”가 잠재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수천명 규모의 미 해군·해병대 병력이 중동으로 향하는 중이다. 헬리콥터, F-35 전투기, 해안 감시용 장갑차의 지원을 받는 보병대대 상륙팀이 포함됐다. 또 미 본토 샌디에이고에서 출발하는 제11 해병 원정단의 배치도 앞당겼다.

익명의 이스라엘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그 해병대원들은 장식용으로 오는 게 아니다”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됐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출구일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의 석유 수출 기지인 페르시아만 하르그섬에 대한 지상군 투입을 염두에 두고 이들 병력이 이동 중이라는 취지다.

이에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하담 알안비야의 예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전날 “이란 발전소를 겨냥한 미국의 위협이 실행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폐쇄되고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밝혔다.

이란은 또 지극 발전소가 공격당할 경우 페르시아만 지역의 미국 관련 에너지 목표물, 정보기술(IT) 시설, 해수 담수화 인프라를 타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4주째로 접어들 이번 전쟁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으로 집중되는 양상이다. WP는 미·이스라엘 안보 당국자들에게 이들 두 곳이 점점 전쟁의 최종 국면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전 초기 밝혔던 전쟁의 주요 목표 가운데 이란 신정 체제의 전복과 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이란의 잔존 핵역량의 완전 제거는 단기간 내 달성하기 어



지난 8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북서부 사흐룬 연료 저장고 공습으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 연합뉴스

려워지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고 공행진 중인 유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이란의 대외 협상과 도발에서 ‘자렛대’로 작용하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확보할 경우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목표를 슬그머니 바꿨다는 분석과 함께,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미국인 62% “트럼프의 이란대응 지지안해”

CBS-유거브 조사...“현재의 이란 지도부 집권하 종전 반대” 비판

미국내 최신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단한 대이란 전쟁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지만 현재의 이란 신정정권의 집권이 유지

된 채로 전쟁을 매듭짓는 데는 비판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CBS뉴스와 유거브가 지난 17~20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남녀 33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 2.1%p)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 상황을 잘 다루고 있다고 보느냐는 문항에 38%가 긍정했고, 62%가 부정적인 답

변을 했다.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은 40%.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60%였다. 이 기관의 지난 3일 조사때에 비해 지지 비율은 4%p 하락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4%p 상승했다. 또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을 위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응답은 43%. 나쁘게 되

어 가고 있다는 응답은 57%였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이 필수적인 전쟁이었다는 견해는 34%. ‘선택에 의한 전쟁’이었다는 응답은 66%였다. 이번 전쟁이 미국을 단기적으로 더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은 27%.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은 36%였던 반면, 단기적으로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은 49%. 장기적으로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은 42%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신뢰하는 지에 대해 부정적 답변이 58%. 긍정적 답변이 42%였다. 또 이란에 대한 지상군 파견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 53%. 필요할 것이라는 답이 47%로 각각 집계됐다.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